

경찰 “운하보고서 존재 차츰 먼저 알아”

■ 李-朴 보고서 유출공방 ‘2라운드’ 李 “보고서 차츰 공유 의혹 확인” 朴 “변조의혹 허위 입증...사과를”

수자원공사의 경부운하 재검토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 보고서 존재 사실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에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나오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 전 대표 측은 9일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에서는 문제의 보고서가 박 전 대표 측으로 흘러간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진실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박 전 대표 측은 이 전 시장 측에서 주장해 왔던 ‘보고서 변조·유출 의혹’이 거짓임을 밝혔다.

그는 “이제 사실이 거의 드러난 마당에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후보는 진실의 전모를 밝히고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석현 교수로부터 보고서 존재 사실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

유승민 의원은 “당시 수자원공사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소문은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던 보고서 이야기를 방 교수로부터 다시 확인했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경찰 수사) 정무원 의원이 ‘특정 캠프의 모 의원이 보고서를 입수, 변조해서 언론사에 흘렸다’는 주장이 완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 의원이 본 의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 후보 캠프는 더 이상 덮어씌우기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대선 주자 관련 자료 유출에 항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청을 향의 방문하자 국제청 관계자들이 이를 취재하려던 기자들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심재철 의원의 목을 팔뚝으로 나눠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 걸림돌 지도자 내년 총선에서도 실패”

DJ, 정동영 전 의장 예방 자리서 밝혀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9일 “대통합에 기여하는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패하게 하는 지도자는 내년 총선에서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교동 사저에서 범여권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합 외에 길이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정 전 의장측 김현미 의원이 전했다.

정 전 의장의 DJ 예방은 지난 5월 27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김 전 대통령은 약 50분간 이뤄진 비공개 회동에서 “지금 국민의 관심은 한나라당에 쏠려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 순간부터 범여권 후보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누가 제일 대통합에 헌신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을 앞에 두고 자신을 뒤로 밀쳐놓고 대통합에 헌신한다면 국민은 그를 앞으로 밀어올릴 것이며, 국민경선을 해서 한나라당과 일대일로 경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평소 지론의 연장선상에서 대통합 기여도를 범여권 후

보 및 지도자의 자질로 연결시키면서 대통합 발언에 대한 수위를 한층 더 높인 셈이다. DJ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5일 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박상천 김한길 대표, 대통합추진모임 정대철 대표 등 범여권 3개 정파 수뇌부 4인의 지난 7일 회동 직후 나온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한 사람도 배제하지 말고 모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당과의 당대 통합을 반대하며 ‘친노 배제’를 염두에 둔 통합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6자 회담은 이제 풀려갈 것이며 성공하면 북한도, 미국도 이익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모두가 손해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을 병행해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 잘 될 것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정부내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뒤 “참여정부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못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초 수장에 언급, “다행스러운 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 제3기 민선 정부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며 “우리 국민은 위대하며 온갖 역경 속에서도 포용 정책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기남 “이재오 X파일 발언 터무니 없다”

‘복지 희망찾기 대장정’ 첫 방문지 광주 찾아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은 9일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국가정보원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X-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최고위원이 한나라당과 민정·민자당 정권시절을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의 진로와 관련, “당의 진로는 자기 이해관계에 입각한 후보들이 아닌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범여, 열린우리당에 있는 사람들도 말로는 반(反)한나라를 외치면서 똑같은 정책·노선을 주장하는데 나는 복지문화를 내세워 성장지상주의인 한나라당과 가치 싸움을 벌여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 사수를 전제로 ▲후보 중심 통합이라는 용어의 전면폐기 ▲분명하고 강력한 당 입장 천명 ▲당에 대한 부정·평화 중단 ▲당의 재정비 ▲열린우리당 분열을 노린 도발인 6인 연설회에 대한 해명 등을 당 안팎에 촉구했다.

‘복지문화 희망찾기 전국대장정’ 첫 방문지로 전남 광주를 찾은 신 전 의장은 이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홍보관,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 북구 희망지역 자원센터 등을 방문한 뒤 전남대에서 “진보는 승리합니다-복지문화강국을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했다. /복지경기기자 jkpark@kwangju.co.kr



친노 세력의 대선후보 중 한명인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9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내 사랑의 쉼터를 찾아 노인들에게 급식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직경기기자 jrwi@kwangju.co.kr

檢 ‘이명박 수사’ 대선정국 요동

한나라 지도부, 李측에 고소 취하 요구 李 “강대표 말이 옳아” 朴 “실체 규명을”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고소·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로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검찰의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이 전 시장 측에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에서 수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고소·고발한 사건을 모두 취소에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최고위원은 “고발은 캠프가 한 것이 아니라, 다스 김재정 사장이 한 것”이라며 “다만 최고위원회 의에서 강 대표를 비롯해 말씀하신 것들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당의 분위기를 고갈한 측에 전하

다”고 말해 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유승민 의원은 “일반 시민인 김재정씨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한 것을 당 지도부가 취하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캠프측 이해홍 대변인은 “소를 취하한다면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소를 취하한다면 평판 등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에 대해 이 후보가 반드시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또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이 전 시장이 법적 고소·고발을 해온 만큼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당당히 법적 절차에 의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 전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전 시장 측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주중반: 2007.8.10(금) / 주말반: 2007.8.11(토)
- 모집기간 : 7. 9(월)~8. 10(금)
- 수업기간 : 2007.8.10~11.16(4개월/15주)
- 수강료 : 250,000

모집인원: 1단계 주중/주말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금, 토) 09:10~14:30(5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예)
- 전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회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 (062)950-3584, 3585, HP: 011-614-4160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2차실~5회 개강일: 7/2~8/31 / 시험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2차실~5회 개강일: 7/2~8/31 /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1차실~4차실 개강일: 7/7~8/1

● 모집대상
▶ 졸업도중 또는 졸업후 1월 이내에 이원준비 예정인 분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인 이신 분 40세 이상 이신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이신 분 / 연차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근로자

● 기타사항
▶ 고용보험기금 직정인 선착순 정액제 모집
▶ 수료후 100~80% 환급
● 접 수
▶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2. 입원비 과 과 정

● 모집과정
▶ 주택관리사 1차실~4차실, 인턴시험준비,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 활용
▶ 주택관리사 2차실~5회 개강일: 7/2~8/31 /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1차실~4차실 개강일: 7/7~8/1

● 모집대상
▶ 고용보험기금 기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 수료후 100% 환급
● 접 수
▶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월수금 19:00~21:00(기초) ▶ 화목 19:00~21:00(기초)

● 노동부직정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60, 232-1088

= 여름 방학을 뜻깊게-유학반기 전년도교육행정직 합격 가장 용이 =

7.9 공무원 대특강

행정직	교무직	세무직	관공직	원서지	검정직	보통직	특수직	전산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	-----	-----	-----	-----	-----	-----	-----	-----	-----	-----	-----

시행내역: ※전남행정직: 10월 13일 7급 23명 9급 193명 확정
※전남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1000명 시험 예정
※전북차 9급행정직 109명 9월 8일 시험

개강 7월9일 주야반 모집
(현재 예약 접수중)

=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시험의 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송원초교 후문앞)
www.mdgosi.co.kr ☎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7월 2일 첫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 기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79도청 앞 전일빌딩 위)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점단정 앞 광주은행 4F)

광양점 ☎ 785-0880 (향원빌딩 4층)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공무원

계정직,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농림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관리직, 기술직

작성반 첫전도! 개강 **전남지방 9급 행정직!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8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형 건너편 ☎ 234-0234 (전직종 첫전도=사면예약접수중)